

이렇게 들었다

참교육

남을 가르치려면 먼저 나부터

우리 교육이 마침내 개혁의 시험대에 올랐다. 교육부는 19일 대입 무시험전형과 고등교육법 개정, 특성화 교육 등에 기초를 둔 2002년 대학입학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개혁의지를 천명했다. 또 죽집계 개혁과외에 대해 철폐를 기하고 교육개혁의 추진관행을 뿌리뽑기 시작했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관련 제반 사항을 이관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안도 마련중이다. 우리 교육이 마침내 개혁의 시험대에 올랐다.

물론 현실적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두가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어떤 가르침으로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 참교육의 의미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새겨보자. (편집자 주)

■공교 바른 것을 길(道)이라 하고 두려움 없는 곳을 목적지라 한다. 고요하고 한가한 수레를 타고 진실의 가르침을 토대로 삼고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바른 생각을 재갈로 하여 지혜를 훌륭한 말로 삼고 바른 소견을 안내자로 삼는다. 이 세상 어느 사람이라도 이것을 타면 생사의 험한 숲속을 지나 편안하고 즐거운 열반에 도달하리라. (집아활경)

■선남자야, 비유컨대 장자(長者)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먼저 반자(半字)를 배우게 하고, 반자가 바르게 된 다음에 차례를 따라 뜻이 깊은 이론을 가르쳐 아들의 학문을 성취시킨다. (대반나함경)

■가르침을 퍼면서 듣는 자를 위해 대비(大悲)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악마의 소행이다. (미역경)

■제가 가르침의 본의(本意)를 알고 있어야 남을 가르치기가 쉬워진다.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려 하면 먼저 저를 가르쳐야 한다. (불치심경)

■저 어리석은 중생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종내 깨달음을 날이 없다. 그러므로 보살마하살은 부지런히 정진해 배움을 닦아 자기의 학문을 성취시키는 한편, 중생들로 하여금 이 가르침 중에서 도리에 맞게 학문을 닦아 실지실견(實知實見)하여, 청정한 온갖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게 한다. (불모출생경)

■사람이 생존 중 아무리 많이 외고 널리 배운다 하더라도, 도리를 깨달지 못하고, 문(文義)·구(句義)를 또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람이 초목을 많이 저 날라 백·천 집에 이른다 해도, 애만 썼을 뿐 아무 소용도 없는 것과 같다. (출요경)

■차라리 조금 바위 도리(뿔)를 이해할 지언정, 많이 배우기만 하고 도리는 이해 못함을 택해서는 안된다. (열반경)

■비유컨대 그물을 잡을 때, 먼저 그 버리를 거두어야만 그물코가 다 바르게 되는 것이니, 버리를 거둘 줄 모른 채 그

물코만 먼저 바르게 하려 하다가는, 뒤죽박죽 서로 뒤엉켜버려 풀 수 없게 되고 만다. 배움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오고장구경)

■무엇을 과문불학(寡聞不學)이라 하나 하면, 밖으로 악을 막기는 하되, 안으로는 밝은 지혜가 없는 주재에 물려 아나하는 일이다. (정법소집경)

■악이 있어도 잘못임을 알아서 과실을 고쳐 선을 행한다면, 죄가 질로 스러져, 후일에 가서는 꼭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십이장경)

■가르침을 살하는 사람은 응답 네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널리 많이 배워 온갖 음정(音聲)과 어구(語句)를 지님이고, 둘째는 세간과 출세간의 온갖 사물의 생멸하는 모양을 정당하게 잘 이해 함이요, 셋째는 선정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번뇌가 없으며, 넷째는 과파됨이 없어서 부처님의 설하신 대로 실천함이다. (십주나비라론)

물코만 먼저 바르게 하려 하다가는, 뒤죽박죽 서로 뒤엉켜버려 풀 수 없게 되고 만다. 배움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오고장구경)

■무엇을 과문불학(寡聞不學)이라 하나 하면, 밖으로 악을 막기는 하되, 안으로는 밝은 지혜가 없는 주재에 물려 아나하는 일이다. (정법소집경)

■악이 있어도 잘못임을 알아서 과실을 고쳐 선을 행한다면, 죄가 질로 스러져, 후일에 가서는 꼭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십이장경)

■가르침을 살하는 사람은 응답 네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널리 많이 배워 온갖 음정(音聲)과 어구(語句)를 지님이고, 둘째는 세간과 출세간의 온갖 사물의 생멸하는 모양을 정당하게 잘 이해 함이요, 셋째는 선정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번뇌가 없으며, 넷째는 과파됨이 없어서 부처님의 설하신 대로 실천함이다. (십주나비라론)



◇해방축하기념 연극공연이 열렸던 우회루. 현재는 고불미술관으로 쓰이고 있다.

김민수교수의 백양사일기 (45년11~12월)

흥겨운 가락, 해방가
- 1945년 11월14일(수)

바깥에서 북치며 노는 소리가 요란하여 나가보았더니 향적전(香積殿) 근처에서 부인 수십명이 얽혀 장구를 치고 춤추며 노래하고 있었다. 장구의 남도가락이 흥겹다기보다 장면은 수라장을 방불케했다. 그래서 오히려 민망스러웠다. 더는 서 있지 못하고 향적전 돌을 따라 방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좋다네 그냥 가...에라 좋다!"라는 소리가 귓전을 스쳤다. 잊지못해 전세버스에 30~40대 부인들인데 어떤 부인들인지 궁금했다. 짙은 뿔머리 보았으니 손님이라고 할 뿐 더 말하지 않아 알 수가 없었다. 거처로 돌아와 그 놀이판을 생각했다. 일제(日帝)의 오랜 굴레에서 벗어난 해방강에서 솟구친 여흥(餘興)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한 동아리가 되어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춤추지 못한 무례를 지지는 않은 아니었을까.

오류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잠기다가 낮잠이 들었다. 피로한 탓인지 참 맛있는 단잠을 잤다. 만세루(萬歲樓)라고도 하는 우회루(雨花樓)에서는 막을 치고 자리를 펴고 하면서 준비에 분주한 소리가 들린다. 오늘 저녁에 연극을 한다. 자리에선 일어나려는데 최덕림 스님이 "산중에 오시니 삼삼하시지요?" 하며 들어왔다.

말뭉치나 되려는 기색이 엿보여 불교에 대해 전무식임을 솔직히 밝혔다. 종교, 특히 불교에 종사하는 분의 인생관은 아주 다를 것 같다고 말문을 먼저 열었다. 그것은 우주론(宇宙論·cosmology)으로부터 인생관이 나오므로 우주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스님이 대답하였다. 우주론은 우주의 기원, 구조, 발달 등에 대한 이론으로 철학·종교의 중요한 부

분인데, 인간은 즉 소우주라는 뜻인지 어떤지 알기 어려웠다. 인생에 대한 종교인과 사회인의 관점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어 깨낸 말인데 오히려 더 큰 의문을 품은 셈이 되었다.

좀더 생각해 봐야겠다는 마음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서양의 불교는 어떠한지를 화제로 삼았다. 실천적인 불교는 동양뿐이 아니라 서양에서는 합리적인 불교철학, 이것이 동양보다 더 발전하였고 향적전 돌을 따라 방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원래 불교는 범위가 매우 광활하고, 기독교는 일신교(一神教·monotheism)였는지 내용이 편협하다고 한다. 설령은 불교가 동양에 국한되지 않았고, 종교로서 기독교보다 낫다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좀더 현실적인 문제로 백양사에서 스님의 대우, 지위는 어떠한가 물었다. 그것은 계급에 따라 다르다는 원칙부터 말하기 시작하였다. 스님의 계급을 세세히 일러는 차례인데 밖에서 서서 오란다는 소리가 들렸다. 밖은 벌써 어둑어둑 황혼이 짙어질 무렵이었다. 스님은 전언을 듣자 몸을 고쳐 앉으면서, 절에서 이웃사람들에게 사려할 겸 연극을 공연하게 되었으니 같이 가서 보아달라고 요청했다.

스님을 따라 우회루로 향하였다. 문 앞에서 한 스님이 "서울 선생님, 이리 오세요"라고 맞으며 뒤쪽에 마련한 의자에 앉으려는데 최덕림 스님이 "산중에 오시니 삼삼하시지요?" 하며 들어왔다.

말뭉치나 되려는 기색이 엿보여 불교에 대해 전무식임을 솔직히 밝혔다. 종교, 특히 불교에 종사하는 분의 인생관은 아주 다를 것 같다고 말문을 먼저 열었다. 그것은 우주론(宇宙論·cosmology)으로부터 인생관이 나오므로 우주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스님이 대답하였다. 우주론은 우주의 기원, 구조, 발달 등에 대한 이론으로 철학·종교의 중요한 부

“불교사상 사회변혁의 지침 삼아야”

정토회 솔락시바락사 초청 시민강담회

태국의 참여불교·환경·인권 운동가 솔락시바락사(65세), 심오한 불교적 시각에 근거한 인간의 영적·종교적 차이를 강조하고, 이것을 토대로 '참여불교운동'을 역설한 솔락시바락사는 태국의 지성인 뿐만 아니라 세계의 종교지도자, 학자, 사회운동가들에게 불교·민주주의·인권·환경·책임있는 정부·자본주의

오류 등에 관심을 갖게 한 인물이다. 정토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그는 17일 '시민강담회'와 본지 논설위원 연거영교수(동국대 법과대학장)와 대담을 갖고 독창적인 행동주의와 불교운동관을 피력했다. 강담회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17일 열린 시민강담회에서 솔락시바락사는 부처님 가르침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했다.

“불교의 사회화는 서로 나누는 공동체” “소비주의는 마귀 종교단합으로 막아야”

“불교를 현대사회의 문제와 관련이 있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불교와 현대 세계를 연결하려면 윤리적 계를 같은 핵심적인 부분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다. 불자들은 대개 전통적으로 농촌에서 소박하게 살아왔다. 따라서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 인접과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학문들의 연구결과를 불교의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학문적 작업 없이는 불교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불교의 지혜를 사회현실 대처방안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불교는 중산층에게만 호소하는 종교가 될 것이다.

“현대사회는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다. 불자들은 어떤 자세를 견

지해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사회질서와 정의에 대한 전통적인 불교 표현을 살펴 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빈곤과 불교의 간소하고 낭비하지 않은 덕목을 동일시 해 불교는 빈곤을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람들이 부를 어떻게 얻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이다. 부처님은 또한 집착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가르쳤다. 청정한 마음을 위한 불교신자는 부를 정당하게 구하고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다. 부에 집착하거나 열매지거나 예측되지 않고 영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의 인권 상황이 좋지 않다. 공교롭게도 이들 나라는 불교국가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미얀마 등의 나라에서의 인권은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정치적 배경에 따라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여기에 잘못이 있다. 관료·경찰·군대 등에서 제시된 인권은 다분히 정치적인 수박에 없다. 캄보디아나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는 불교국가들의 인권사상은 불교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성보다 문화·정치·경제적 여파에 따라 그 정의가 왜곡되고 있다.

“불교가 중심적인 사회 체계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불교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상제, 열반, 연기, 무아 등 불교의 정통교리를 이론으로만 보지 말고 개인과 사회변혁의 지침으로 보려고 해야 한다. 불교의 전통은 소박함을 기초로 한 공동체의 중심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돈에 끌리지도 말고 중요성을 두지도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불교가 중심이 되는 사회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지, 기르던지 기꺼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사회일 것이다.

“아시아 불교와 서구 불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유럽과 미국의 초기불교는 지식인들에게 선호되고, 개인적 깨달음과 명상적 생활로 보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이곳의 불교는 사회참여적 성향이 강하다. 반면 아시아 불교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불교를 가리켜 “불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름답게 저물어 갈 것이 다”라고 말하고 싶다. 일본불교는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는 매춘과 실직 등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불자는 사회의 구조에 숨겨져 있는 폭력을 알아야 한다.

수계를 받을 때 재가불자들이 받는 오계를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회적·지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항상 불교와 기독교 등 종교간 교류와 대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종교는 개인의 영성을 존중하고 있다. 종교간 높낮이가 없고, 상호 존중해야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 종교들이 단합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소비주의를 막는 것이다. 소비주의는 마귀의 종교와 같다. 우리의 삼독과 경쟁심리를 자극한다. 코카콜라와 같은 다국적기업들은 TV광고를 통해 끊임없이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 종교간 네트워크는 각 종교 속에서 도덕성과 영성을 찾고, 이를 통해 ‘소비주의’라는 마귀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21세기를 향찬 불교의 나아갈 방향 세미나

초대의 글

귀의삼보하옵고,
국화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21세기 불교연합회는 부처님의 대자비 사상으로
전문문화 가치관을 확립하며 자유, 평등, 화합을 바탕으로 자아실현과
정법구현을 통한 불국토 건설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미래사회를 맞아 불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불교의 종교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에 대해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해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모조록 사부대중 여러분의 동참을 바라며
21세기 불교연합회의 발전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2(98)년 10월 26일

21세기 불교연합회 회장 김법조 합장

21세기 불교연합회 창립목적

현대사회는 전문분야에 걸쳐 숨가쁜 변화를 겪고 있다. 다가올 미래사회 역시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문화와 생활양식으로서는 적응하기 힘든 새로운 삶의 방식이 기다리고 있다. 기존의 종교는 미래사회에 있어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갖게 될 것인가? 21세기 불교연합회는 미래사회에서 불교가 해야 할 다양한 방면의 역할에 앞서 불교의 위상정립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사부대중의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모임으로 태어난 21세기 불교연합회는 정법선양을 통한 인류의 불자화, 지구촌의 불국토화를 위해 웅망정진할 것이다.

21세기 불교연합회 위원

위원: 종하, 동광, 원택, 종성, 지명, 법산, 원행, 지홍, 성법, 무영, 법승, 근일, 설송, 법혜, 영운, 혜강, 지혜, 혜자, 무상, 홍선, 적운, 원학, 법경, 법경, 화랑, 일휴, 법화, 동운, 도광, 오연, 진풍, 해선, 명호, 수현, 정덕
회장: 법조 사무총장: 무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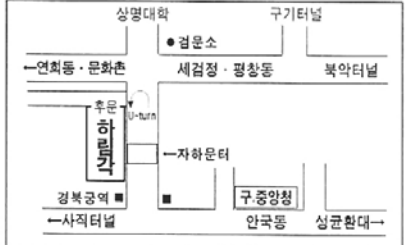
- 주 제 : “21세기 불교의 나아갈 방향”
- 연 제 : 불기 2542(98)년 11월 5일(목) 오후 2시
- 어디서 : हरिहल 신관 2층 (02-396-2442)

일정

- 1부 세미나 -

- 오후 2시 개회 - 사회: 해담스님(각화사 주지)
삼귀의 반야심경
인사말: 법조스님(본회 회장)
축사 1: 월주스님(총무원장)
축사 2: 종하스님(본회 부총재)
- 오후 2:30 제1발표: “21세기의 불교와 복지”
-지하스님(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제1토론: 해창스님(강북장애인복지관장)
- 오후 3시 제2발표: “21세기의 불교와 동양사상”
-송석구(동국대학교 총장)
제2토론: 최근덕(성균관 관장)
- 오후 3:30 전체토론
- 오후 4시 사홍서원

- 2부 만찬 -



문의 : 21세기불교연합회(02-736-9948/737-8964)
हरिहल 신관2층 396-2442~9

R.S.V.P. : 참석여부를 전화로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세기 불교연합회회장 석법조 합장